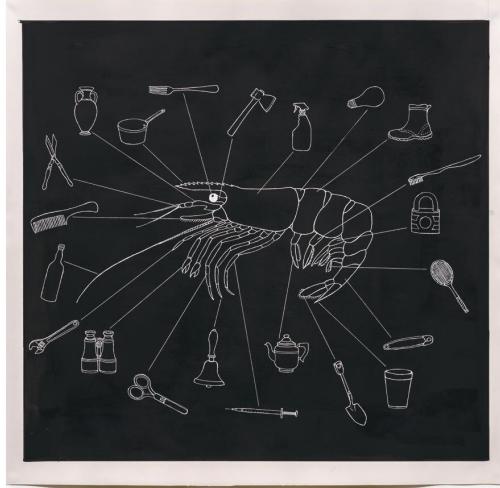


BARAKATCONTEMPO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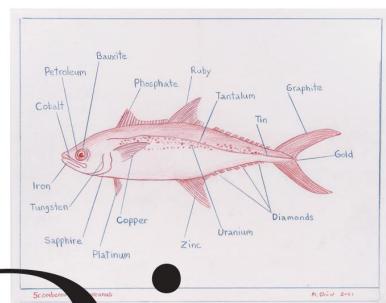
LUXURY

INTERVIEW





해양 생물을 관찰해 완성한 신작 드로잉
'The Shirimp'와 'Scomberomorus Korean'.
© Mark Dion & Barakat Contemporary



Mark Dion

사물과 인간, 자연을 매개하는 예술가

연구자 같은 자세로 환경과 물질, 인간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온 개념 미술가 마크 디온.

그의 아시아 첫 개인전 <The Sea Life of South Korea and Other Curious Tales>가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열린다.

작가가 한국의 해양생태계를 관찰해 완성한 신작을 만나볼 유일무이한 기회다.

마크 디온의 작품을 처음 발견한 건 수년 전 한 아트 복 서점에서였다. 파이돈 Phaidon에서 출간한 작품집의 표지에는 타이어, 양동이 같은 쓰레기 더미 위에 새들이 박제처럼 같이 놓여 있었다. 1992년 완성한 그 작품의 타이틀은 '콘크리트 정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마크 디온은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일상이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시각을 견지해온 작가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축적한 작업의 궤적을 따라가보면, 누구든 그가 일관된 주제 의식을 지닌 채 작업을 지속해왔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환경과 인간, 물질의 관계 같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표현할 때 그는 특유의 관찰력과 상상력, 유머 감각을 더하고, 학구적이며 수집광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전시 주제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고, 장소를 직접 방문해 전문가와 협업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시를 할 때에도 실내, 실외의 구분 없이 공공 미술의 영역과 갤러리에서의 전시를 아우르며 활동한다. 시애틀 미술관 75주년을 기념해 올림픽 조각공원에 영구 소장된 작품 'Neukom Vivarium'이 그 대표적 애다. 스스로 "조각과 건축, 원예의 하이브리드 작품"이라고 칭한 설치물은 건축가와 함께 설계한 온실 안에 시애틀의 숲에서 쓰러진 거대한 통나무를 중앙에 두고, 박테리아, 곤충, 이끼를 나타내는 타일을 배치한 작품이다. 그가 만든 예술적 생태계 안에 나

마크 디온 196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에서 태어나 코네티컷 하트퍼드 예술대학과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학업을 마친 뒤 휘트니 미술관의 독립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설치 작품, 드로잉, 인쇄 출판물 등 경계를 넘나들며 작품에 환경과 인간, 물질의 관계성을 담아낸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는 전 세계에서 아트, 실내를 망라하고 전시를 이어왔으며, 뉴욕 현대미술관 (MoMA)을 포함한 세계적 뮤지엄과 갤러리, 시애틀의 올림픽 조각공원 등에 작품이 영구 소장되어 있다.



죽어가는 산호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표현한 설치 작품 'Blood Red Coral'(2013).
© Mark Dion & Tanya Bonakdar Gallery, New York-Los Angeles

무와 생물들을 그대로 서식하도록 만들었고, 관람객들은 돋보기로 이를 관찰할 수 있다. 수집가, 사회운동가, 탐험가, 고고학자, 연구자, 기록자 등 수많은 수식이 그의 이름 앞에 붙지만, 그는 오직 비주얼 아티스트만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단이라고 말한다.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해 2주간의 필드 리서치를 마친 그는 한국의 서해와 남해 지역을 둘러보며 수많은 과학자 및 환경운동가를 만났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통해 한국의 생물 다양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충남연구원의 과학자들,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O.C.E.A.N)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도중에도 그는 한국의 해안에서 모은 다양한 해양 쓰레기의 사진을 보여줬다. 폐기물들은 캐비닛에 담겨 전시될 예정이다. 일상적 물건을 작품으로 끌어들인 '네오 다다', '생태 미술' 등 그의 작품을 규정하는 장르는 많지만, 마크 디온은 하나의 장르에 국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자체를 장르라 일컬을 만큼 대체 불가한 시선으로 전시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는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를 설계하고, 선명하게 프레젠테이션한다. 마크 디온의 개인전 <The Sea Life of South Korea and Other Curious Tales>가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열린다. 해양 이슈를 다룬 두 점의 대형 신작과 드로잉, 과거 작업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그는 분명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해양과 연관된 광경과 사물이 빛은 풍경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에서 첫 전시를 앞둔 소감은? 내게 전시란 관객에게 내 작업의 주제 및 방법론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지닌 유머, 쏟아온 노력까지 모두 보여주는 산물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관객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특수성을 알아가고 싶었고, 더욱 압도적인 전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났다. 일반적으로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라기보다 박물관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는 자세로 바라캇 컨템포러리와 함께 전시를 구성했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를 '해양'으로 잡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오랜 기간 해양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해양에 대해 듣는 소식 중 좋은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도한 어업, 산호의 백화, 해양 플라스틱…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파멸의 관계'에서 협력의 길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들여다보고, 이를 작품에 담아 재맥락화하는 것은 내게 필연적인 작업이다. 추한 쓰레기도 각각의 개체가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고, 매력적인 색상과 모양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작품은 늘 관람객이 서 있는 장소와 연관시키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 주제를 발전시킨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과학적 방법론에 관심을 쏟고, 몰두해왔다. 고고학, 현장 생태학, 민속지리학과 박물관 큐레이팅 실습 등 다양한 분야를 익히는 과정은 까다로웠지만 모두가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예술이 현실의 실천과 연관될 때 더욱 흥미를 느낀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지, 자연과 다른 우리 사회의 책임은 무엇인지 같은 주제가 일반 갤러리 작품보다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 주제와 관련한 수많은 물건을 모으고, 이를 배치하는 일은 당신 작업의 근간이다. 당신에게 수집이란 어떤 의미인가? 수집과 배치는 내게 중요한 작업 도구이자 수단이다. 예술가 중에는 방대한 규모의 컬렉터들이 많은데, 그들 중 일부는 수집한 물건의 형태를 자신의 스타일대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물건을 맥락에 맞춰 분류하는 작업을 선호해왔다. 수집할 물건을 고를 때 어떤 질서 체계가 필요할지 고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쓴 앤티크 캐비닛과 르네상스 시대의 가구가 각각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식이다.

유년 시절 산업화가 왕성한 항구도시, 뉴베드퍼드에서 자



2016년 제작한 'Brontosaurus'. 청소 도구들이 놓인 단상에 타르가 쏟아져 있고, 그 위에 멸종된 공룡을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멸종을 은유한다.

수집광인 그는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해양 폐기물과 일상의 사물을 캐비닛에 배치해 전시해왔다.



라며 물질과 환경에 관한 고찰을 해왔다고 들었다. 최초로 목격한 환경에 대한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개발이 많던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내가 자라온 매사추세츠 해안은 폭기적인 해변이 아닌 오염된 항구에 가까웠다. 그래도 그 속에는 바위와 해안가에 생명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레 자연은 쉽게 황폐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다. 아무리 인간이 세상을

재설계하려해도 자연과 유기체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깨달음. 바다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수많은 농장과 숲이 주택 개발을 위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런 환경은 분명 내 가치관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팬데믹 이후 어떤 방식으로 작업에 임해왔는가? 고립된 상황에서도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이런 위기를 비교적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 같다. 예술가에게 경제적 위험과 작업의 불확실성은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드로잉 작업을 지속하며 꽤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왔다. 먼 미래에 우리가 이 순간과 상황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카이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작업하고 싶은 주제,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가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 그간 내 작업을 규정해보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복잡하고, 암울하고,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지만 이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나만의 방식대로, 간접적인 접근과 메시지를 전달해 관람객과 교감하고 싶다. 예술가로서 나를 매혹시킬 이보다 더 도전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없기 때문이다. ☕

글 안서경 기자

사진 이우경 기자 | 취재 협조 바라카트 컨템포리리(barakatcontemporary.com)